



그녀의 바디프렌드

멋진 힐러리 패션 수트, 디자이너는 한인 정순화씨

[중앙일보] 입력 2008.11.04 14:43 / 수정 2008.11.04 16:57

“스타.영부인이 고객... 내가 짓는 건 옷 아닌 꿈”

미 대선 예비선거 시즌. 힐러리·오바마의 박빙 승부가 지구촌 화제였다. 이와 더불어 힐러리의 팬트수트(여성용 바지정장) 패션이 세계인의 눈길을 끌었다. 만든 주인공은 한인 디자이너 수재나 정 포리스트(한국명 정순화).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생활과 디자인 철학을 들었다.



디자이너 수재나 정 포리스트는 “유명을 좇기 보다는 라이프 스타일과 이미지를 고려한 의상을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말한다.

“제 의상은 화려하다기보다는 세련된 느낌이 강해요.”

수재나 정 포리스트는 자신의 디자인 컨셉트를 이렇게 소개했다. 정씨는 전세계의 영화와 패션산업을 주도하는 베벌리힐스에서 ‘수재나 베벌리힐스(Susanna Beverly Hills)’란 부티크를 34년간 운영해 왔다. 정씨가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건 역시 힐러리 상원의원의 팬트수트를 통해서다. 이후 그녀는 LA타임스·보그등 우수 신문 및 패션잡지에 인터뷰가 실리며 큰 화제를 모았다.

하지만 정씨는 오래 전부터 주목 받는 의상 디자이너로서 입지를 굳혀왔다. 1970~1980년대 100편이 넘는 미국 영화와 TV드라마 속 배우들의 의상을 제작했다. 대표작으로는 샤론스톤을 톱스타로 만든 영화 ‘원초적 본능’과 ‘러브보트’, 브루스 윌리스의 데뷔작인 TV드



이 시각 주요뉴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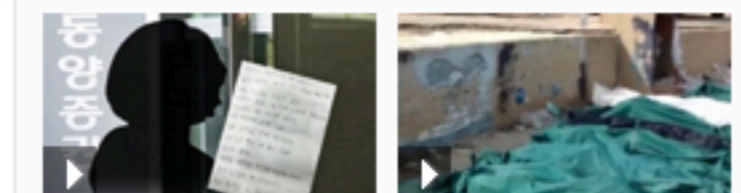
- "북구 대화록 내용이 오히려..." 놀라운 사실
- 이승만 전대통령 "내 국적, 일본" 자필표기 충격
- 대변인실 '공공'...돌직구 한방에 일어선 윤진숙
- 김기춘, 채동욱 사퇴 배후 지적에 단호한 한마디
- 노벨상 굶주린 한국, "10년 내에..." 충격
- 미, 北에 제시한 화끈한 '당근' 뭔가 봤더니
- "늑으면 죽어야" 막말 판사, 이번엔 女피고인에
- 3개월 전 이재용 '예언' 뒤길래...삼성, 일 냐다
- '속 보이는' 수영복 입고 흔들...'어머나!'
- 승용차와 나란히 달린 'F-4E전투기'...무슨일
- 쌍둥이 12쌍 사는 신기한 마을 가보니 '진풍경'
- 589억짜리 노란색 다이아 들어올려보니
- 50대 교사, 나무도끼로 女초등생 성기 때린 뒤...
- 이런 노출 없었다, 女배우 반전 영영이 노출
-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해변에 누워

비즈링크

※OPAP

- 로또1등번호 무료받기
- 의료실비보험 유리하게 가입하는 방법?
- 나빠진 시력, 눈운동하면 회복된다
- 성형,당신의선택 코리아성형외과의원(의
- 로또1등번호 무료받기
- '이것'하나로 2주-9kg 쏙~뺐다?

JTBC 투데이 핫



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파인드잡

중장년 시간제 일자리 채용관



내신? 수능? 면접 100% 대학 입학 가능!



★★★★★ 10년 연속 최우수학교